

'삼성전자' 주식 사상 첫 액면분할...깜짝 분할 이유는

올 배당금 9조6천억...주식 통한 사회 환원

1주 가격 250만원 넘기며 무거워져...주식수 50배 늘어 5월부터 매입 가능...사측 "내주 이재용 2심 선고와 무관"

삼성전자가 지난 31일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이른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반기 실적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중 가장 비싼 249만원이다. 이를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하면 산술적으로 주가는 50분의 1인 약 5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주가 1주가 50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 요구가 많았다.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거래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액면분할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주주 가치 제고 조차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기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배당 확대로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수단으로 액면분할을 택했다는 설

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고액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들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지금 액면분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가가 250만원대를 넘어서서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총 5억주인데 실제 발행된 주식은 약 1억4700만주이다. 이 중 의견권이 있는 보통주는 약 1억2900만주다. 액면분할을 거치면 발행된 주식 수는 현재의 50배로 늘어난다.

세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결정이 다른 고가주를 보유한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투자 접근

성이 확대된 만큼 주주도 크게 늘면서 경영참여나 간섭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현재 약 53% 수준으로 절반을 넘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액면분할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 추정도 있다. 하지만, 주식 액면분할과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액면분할로 승계 비용이 늘어난다면 주가 상승 역시 승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2015년부터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 정책 등 주가를 부양해놓고 이재용 경영권 승계 때문에 액면분할을 기피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액면분할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총을 통과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66.46 (-1.28)
- ↓ 금리 (국고채 3년) 2.27% (-0.03)
- ↓ 코스닥 913.57 (-7.39)
- ↓ 환율 (USD) 1067.90원 (-5.70)



광주은행 금융상품 음성 안내 서비스

오늘부터 '보이스코드 프로그램'...시각장애인 편의 증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보이스코드 프로그램'을 2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보이스코드 프로그램'은 금융상품 안내장이나 홍보물의 우측 상단에 보이스코드 바코드를 함께 인쇄해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시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향후에는 정각장애인을 위해 웹캠을 이용한 수화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광주시청지점과 동구청출장소, 서구청출장소, 남구청출장소, 북구청출장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코드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시장개척 설명회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은 지난 31일 본사 비전홀에서 KOTRA(사장 김재홍)와 함께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밸리 투자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전과 KOTRA의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 설명 및 사례발표 등과 함께 기업들과의 1

대1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기업들은 생산역량 제고에서부터 해외시장 및 자사역량 분석 그리고 바이어와의 연결지원 등 해외진출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기회가 됐다.

안광석 상생협력처장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은 투자기업들의 성공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설명회가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호반건설, 대우건설 주인 확정...인수대금 1조6242억원

대우, 2016년 매출 호반 10배

업계 13위 업체가 3위 인수

지분 50.75% 2년간 분할인수

건설업계 시공 순위 13위(2017년 시공 능력평가 기준) 업체인 호반건설이 3위인 대우건설의 인수자로 낙점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31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건설 지분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무난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KDB 밸류 제6호'를 통해 보유 중인 대우건설 주식 2억1093만1209주(지분율 50.75%)다.

호반건설은 매각 대상 지분 50.75% 중 주당 7700원에 지분 40%만 사들인 뒤 나머지 10.75%는 2년 뒤에 인수하는 분할인수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매각 가격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주당 7700원 수준으로 알

려졌다.

매각 대상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수 가격은 1조6242억원이지만 지분 40%만의 인수대금은 1조2801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대우건설의 주가는 하락세다. 산업은행이 매각 공고를 한 지난해 10월 13일만 해도 대우건설 주가는 7150원이었으나 현재는 6000원대 초반이다.

이번 매각으로 산업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인수와 유상증자에 투입한 자금만 3조

2000억원이다. 취득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 셈이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은 시공 평가 13위 업체로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아파트 전문 건설회사다.

대우건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어 업계 3위의 대형 건설사로, 2016년 기준 매출액은 호반건설이 1조2000억원, 대우건설이 10조9857억원이다.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간 매매 계약이 확정되면 새우가 고래를 삼킨 꼴이 된다. 산업은행은 다음달 호반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 실사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조건을 확정된 뒤 올 여름께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하세요"

농식품부 4월20일까지...산간·오지마을은 방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나 각 읍·면·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했고 지급대상 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 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함께 5년 이내 신청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